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2(1): 103~113, 2011

조선시대 수노리개에 나타난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양 숙 향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n Expressive Features of Embroidered Norigae in the Chosun Dynasty

Yang, Suk Hyang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formative features of embroidered norigae in form, color, pattern and expressive technique through positive analysis of relics and various of collections of work and to consider expressive features of embroidered noriga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broidered norigae has handcrafted decoration. it was made by being sewed for women longing for their family's happiness. Embroidered norigae is a dress worn by women that is hung on a coat string or the waist part of a skirt. Second, it is eco-environmental. Embroidered norigae applied things seen in nature such as flowers, butterflies and bees to its pattern. Third, it has practicality. Embroidered norigae has high practical value besides a decorative function. Needle case norigae and incense case norigae provide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women's wisdom and skill as well as practicality. Fourth, it is praying for good luck. Women embroidered patterns symbolizing their desires in life such as their family's happiness, wealth, many sons and a long life. Fifth, it has balance and harmony. The knot of embroidered norigae has a perfect symmetry in the front/back part and in the right/left part. And the main body and tassel are symetrical in the right/left part, which gives stability and comfortableness. Embroidered norigae is classified into knot, main body and decorative part in its form. The three kinds express their unique beauty by being harmonized together. Finally, it has a property of melody. Movement of the tassel has a property of melody shaken by the wind and movement of its wearer.

Key words: embroidered norigae, expressive features, handcrafted decoration, pattern, tassel

---

이 논문은 2009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1년 1월 19일 심사일: 2011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16일
Corresponding Author: Yang, Suk Hyang Tel: 82-61-750-3682 Fax: 82-61-750-3680
e-mail: maria@sunchon.ac.kr

I. 서론

21세기 글로벌 문화 시대에 각 나라마다 전통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통적 요소를 각종 디자인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에서 한(韓) 스타일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고유의 한지, 한옥, 한식, 한국 음악, 한복 등 전통문화의 브랜드화에 힘써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표현된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자국의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 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시대 수노리개는 한국문화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소재로서 그 가치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는 금기숙(1999)의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적으로 활용된 전통장신구 중에서 특정 부분만을 활용하는 조형적 요소로 족두리, 비녀, 노리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인가 꾸미려는 장식행위를 한다.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이러한 장식에 대한 욕구는 오늘날 액세서리에 의한 다양한 연출로써 개성표현의 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양숙향 2009). 조선시대 수노리개는 당시 여인들의 정성이 담긴 전통 장신구로써 현대에서는 노리개 특유의 섬세하고 고급스런 독특한 면을 되살려 전통적 요소와 개성 표현의 현대적 요소가 담겨진 것으로서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새로운 액세서리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선행 연구(김세환 1994; 은영자 · 정명숙 1984; 이세진 1983; 이승희 2005; 이은숙 · 김진구 1987; 정명숙 1984)를 고찰한 결과 지금까지 자수에 관한 연구나 노리개에 관한 연구 등 각각의 분야에서 노리개 혹은 자수로 분리되어 연구 되었으며 박정례(1981), 홍복희와 박경자(1992), 이경자 (2005)의 조선시대 수노리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 조선시대 수노리개에 나타난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전통으로서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개인의 개성표출은 물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예로서의 발전과 장신구 디자인 기획 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조선시대 수노리개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관련문헌과 박물관 또는 개인적으로 소장되고 있는 조선시대 수노리개에 관한 각종 도록 작품집에 (국립민속박물관 2005; 국립중앙박물관 2004; 금기숙 1994; 김완길 1994; 김은영 1998; 박성실 등 2005; 석주선 1985; 이경자 등 2003, 이경자 2005; 한영화 1994; 허동화 1997) 나타난 유물 100여점을 실증적 자료로 활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수노리개의 기원과 발달

노리개란 원래 '신기하고 보기 좋은 물건' '사랑하며 가까이 두고 즐기는 물건'(玩好之物)을 뜻하는 것으로(이경자 2005) 금(金), 은(銀), 주옥(珠玉) 등으로 만들어진 조선시대 특유의 패물로서 허리띠나 옷고름에 차는 장식물이라 해석할 수 있다(은영자 · 정명숙 1984). 우리나라에 이러한 노리개가 어디에서 언제 들어와 사용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류복식의 발생과 발달의 한 요인이 장식 본능에 있는 만큼, 원시시대부터 있어 왔을 것이다. 즉 원시인들이 허리에 두른 끈에 사냥감인 맹수의 이빨을 매달고 다녔을 때 패물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남선(崔南善1890-1957)은 그의 저서『조선문학개설』에서 노리개의 기원을 '주술 종교에 있어서의 제마(除魔)의 표상에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아이들이 반드시 차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했다(육당 전집 편집위원회 1974). 한편 인류가 원시생활에서 재료를 꼬거나 짜거나 하는 행위에서 바늘이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자수 또한 인간 본연의 장식본능에 의해 복식의 기원과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이며 점차 장식으로 발달하였을 것이다. 노리개에 수가 새겨진 수노리개는 이

러한 노리개 및 자수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수노리개의 발달을 살펴보면 고대 삼국시대에 지배층들은 위계질서를 확고히 하고 지배층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금, 은으로 장식하거나 수를 놓았다. 불교가 중요시되던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의식과 행사에 불구(佛具) 수노리개를 비롯한 불교에 관련된 수예품이 발전하여(홍복의・박경자 1992) 자수가 고려인들의 생활 속에 뿌리깊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긍이 쓴《宣和奉使 高麗圖經》에 '왕비와 부인은 홍색을 숭상하여 그림과 수에 이를 더하되(王妃婦人 以紅爲尙益加繪繡)'(민족문화추진위원회 옮김 2005)와《高麗使》지 제39 형법 금령 성종 원년에 보면 '관직이 없어도 집안이 부유하면 능라금수를 사용했다(公欄雖無職而家富則用綾羅錦繡)'... 정종 9년 '서울과 지방의 남녀가 비단에 금빛으로 수놓은 것이나 용봉 무늬를 둔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禁中外男女錦繡鎖金龍鳳紋綾羅衣服)'... 인종 9년 '서울과 지방에서 비단자수 놓는 일을 정지시키고(停內外錦繡工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1992)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흉배제도의 제정과 함께 왕실의 복식과 기타 용품에 사용하는 자수 장식을 전담했던 수방(繡房)이 설치되고, 합사장(合絲臟), 연사장(練絲臟), 침장(針匠), 침선장(針線匠), 재금장(裁金匠) 등 자수와 관련된 공장이 구분되면서 세분화, 분업화, 전문화되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양반층의 수요가 급증하고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부유한 중간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특권층에서만 누리던 다양한 문화생활이 일반대중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자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발달되었다. 궁을 중심으로 왕실 및 왕족의 의복, 왕실의 기타 용품에 사용했던 고급스럽고 화려한 궁수와 한편으로 세련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수가 바로 그 예이다(김민정・이상은 2008). 이때 궁중에서 쓰던 수노리개는 궁중 수방 나인들의 작품으로 표현 수법이 정밀하고 색상의 배치가 세련되었으나 규범화된 수본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소 격식화되었다. 반면 민간의 수노리개는 패용자들이 손수 만들었으니 비록 숙련도가 떨어지고 정교성은 없으나 각자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져 그 섬세함이 조선시대 여인들의 정서와 소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이경자 2005). 이처럼 연령과 사회적인 계층에 관계없이 조선시대 여자 복식에 액센트를 주는 하나의 장신구로써 두루 사용되었던 수노리개는 당시 여인들의 미의식과 생활 정서에 합치되어 발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수노리개의 구성

수노리개는 띠돈(帶錢), 다회(多繪), 주체(主體), 매듭(每緝), 유소(流蘇)로 구성되어 있으며(Fig. 1) 주체부분에 수가 놓아져있다. 주로 독립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진 단작노리개로 패용되며 보존이 어려워 현재 남아있는 유품이 많지 않다. 띠돈(帶錢)은 수노리개의 맨 윗부분에 달려 각줄의 끈목을 모아 옷고름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네모꼴, 원형, 꽃잎모양, 나비모양 등 여러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화문, 쌍희자문(雙喜字文), 용문, 불로초문등의 길상문양(吉祥文樣)이 장식되어 있다. 다회(多繪)는 대금, 주체, 매듭, 유소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실을 합사하여 두 가닥, 세 가닥

Fig. 1. Construction of embroidered norigae (National Museum of Korea 2004)

또는 그 이상으로 꼬은 끈과 여러 가닥으로 쳐서 만든 짜는 끈으로 나눌 수 있다. 폭이 넓은 광다회와 끈목의 둘레가 둥근 원다회가 있는데 수노리개에는 주로 원다회가 사용된다. 주체(主體)는 수가 놓인 부분으로 주체의 형태는 수노리개의 명칭을 결정한다. 이때 자수는 실의 굵기와 꼬은 정도에 따라 입체적인 느낌이 다르며 바탕천에 아름다운 색실로 곱게 수놓은 문양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 청초한 멋과 단조로우면서도 다양성을 느끼게 하여 수노리개를 더욱 미화하기도하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는 바탕이 된다(이은숙 · 김진구 1987). 매듭(每緝)은 주체를 보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장식하는 역할을 하며 주체와의 조화가 중요하다. 유소는 갖가지 실로 여러 종류의 다회를 쳐서 그것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달아 드리운 것이다(유희경 · 김문자 2001).

Ⅲ. 수노리개의 조형적 특성

1. 형태

조선시대 수노리개는 대다수 독립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진 단작노리개로 패용되었고 비록 삼작수노리개라 하더라도 단작수노리개 3개를 함께 엮은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분리하여 각각 고찰하였다. 그리고 형태가 많이 훼손되었거나 색상을 알아 볼 수 없는 것 등을 제외하고 상태가 좋은 것을 선별하여 각종 도록에 쓰여진 명칭과 홍복의와 박경자(1992)의 논문을 참조하여 대표적인 수노리개의 종류를 12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향갑노리개, 바늘집노리개가 가장 많았으며 나비노리개, 비취모발향노리개, 매미노리개, 괴불노리개, 수서각노리개, 수연화문노리개, 박쥐노리개, 천도향낭노리개, 자라줌치노리개, 골무노리개 등을 볼 수 있다. 향갑노리개(Fig. 2)는 향을 넣은 갑으로 만든 노리개를 말하며 형태는 대체로 사각형이 많다. 주체의 중앙에 동자문, 호랑이문, 꽃문양, 문자문 등을 수놓았으며 고체향제를 넣어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베이어 나오도록 하였다. 또한 향갑에는 사향을 담아서 바깥출입 시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급체를 하였을 경우 갈아서 먹기도 하는 등 구급약품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바늘집노리개(Fig. 3)는 바늘집으로 만든 노리개로 부녀자들이 항시 사용하는 바늘을 손쉽게 찾아 사용하거나 갑자기 옷을 손볼 일이 생겼을 때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바늘 보관 도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용적인 노리개이다. 바늘을 넣는 아랫부분과 윗 뚜껑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원형이 가장 많고 사각형, 타원형, 하트형과 호리병형 그 밖에 바늘집과 골무를 함께 연결한 노리개도 있다. 나비 노리개(Fig. 4)는 사실적인 나비의 형태를 가진 노리개와 기하학적

Fig. 2. Incense case norigae (Lee 2005)

Fig. 3. Needle case norigae (Lee et al 2003)

Fig. 4. Butterfly norigae (Lee 2005)

Fig. 5. Jade scent norigae (Lee 2005)

Fig. 6. Cicada norigae (Huh 1997)

Fig. 7. Gwebul norigae (Kim 1994)

인 형태 주머니 안에 향을 넣은 노리개 등 종류가 다양하다. 금사를 나비모양으로 수를 놓았으며 이 때 나비는 부부금실, 화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길상의 상징이었다. 비취모(翡翠毛) 발향노리개(Fig. 5)는 원통형의 향나무 조각을 발처럼 엮어 꾸민 특이한 모양의 노리개로 주로 궁중에서 쓰였다. 발향부분을 연결한 타원형부분에는 연화문이나 모란문 등을 수놓았다. 매미노리개(Fig. 6)는 매미의 형태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과 단순화한 것도 있으며 주체와 술 사이에 구슬을 넣어 연결하였으며 주체와 술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형태이다. 괴불노리개(Fig. 7)는 다양한 색상의 공단에 수를 놓아 삼각형을 세 개나 다섯 개를 방사형으로 붙이거나 삼각형에 장도형, 하트형을 이어 붙였다. 주로 서민여성들이 애용하던 것으로 다양한 색실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괴불은 귀신을 쫓는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다. 수서각노리개(Fig. 8)는 서각형(犀角形) 2개를 포개어 놓은 형태로 잔물결무늬와 잎사귀무늬를 섬세하게 수놓았으며 술의 길이를 길게 드리워 우아한 느낌을 더한다. 연화문노리개(Fig. 9)는 연꽃봉우리 형태와 팔각형에 연꽃을 얹은 형태가 많았다. 금색, 주황색, 홍색, 녹색 바탕천에 연화, 나비, 나뭇잎, 박쥐, 봉황, 구름 등을 단순화하여 다양한 색실로 화려하게 수놓았다. 박쥐노리개(Fig. 10)는 박쥐의 형태로 적색공단에 수를 놓아 표현했다. 귀면은 검정색수를 놓았으며 입속에 수(壽)자문으로 혀를 만들어 달고 주변에는 화초문양을 수놓았다. 천도향낭노리개(Fig. 11)는 천도형태와 천도와 박쥐를 이은 형태였으며 주로 장수를 상징하는 천도와 다산과 복을 상징하는 박쥐를 같이 수놓은 노리개가 많았다. 자라줌치노리개(Fig. 12)는 조선시대 제23대 순조의 제 3녀 덕온공주가 출가할 때 장식했던 것이다(석주선 1985). 자라모양의 작은 주머니 형태를 다홍색 술에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백공단에 봉황, 구름, 불로초 등을 오색 견사로 수놓았다. 십장생은 장수를, 주머니는 복을 상징하고 있다. 골무노리개(Fig. 13)는 바늘집노리개와 함께 부녀자들이 항시 사용하는 골무를 이어 붙여 만든 실용적인 것으로 다양한 색상의 공단에 수를 놓았다. 이러한 골무노리개는 노리개를 쉽게 사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만든 골무를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향갑노리개의 형태는 대체로 사각형이 많으며 바늘집노리개는 원형이 많고 사각형과 타원형, 그리고 바늘집과 골무를 함께 연결한 것도 있다. 또한 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한 매미노리개, 수연화문노리개, 박쥐노리개, 천도향낭노리개, 자라줌치노리개 등을 볼 수 있다. 괴불노리개는 삼각형을 세 개나 다섯 개를 방사형으로 붙였으며 수서각노리개는 서각형(犀角形) 2개를 포개어 놓은 형태이다.

Fig. 8. Sooseogak norigae (National Museum of Korea 2004)

Fig. 9. Lotus norigae (Suk 1985)

Fig. 10. Bat norigae (Lee 2005)

Fig. 11. Heavenly peach norigae (Lee 2005)

Fig. 12. Jarajumchi norigae (Park et al. 2005)

Fig. 13. Thimble norigae (Lee et al. 2003)

Table 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mbroidered norigae

Norigae	Form	Color	Pattern	Expressive Technique
Incense case norigae	square	subject-dark green, red knot-red, green tassel-red, yellow, green, blue	lotus flower, clouds, wave, rock, moon, sun, statue of a small boy, tiger, phoenix, letter, flower	lotus flower, clouds, wave, rock, moon, sun, statue of a small boy, tiger, phoenix, letter, flower-twist thread, flat embroidery, gold thread, tuck embroidery
Needle case norigae	circle, square, gourd bottle shape, heart shape	subject-red, white, green, pink tassel-red, yellow, white, green, pink, black	flower, butterfly, oblique	flower, butterfly-twist thread, flat embroidery, outline stitch /border-stitching
Butterfly norigae	butterfly shape	subject-red knot-red, pink, yellow tassel-red, pink, green, yellow, blue	flower, grapes, butterfly, clouds	flower-twist thread, flat embroidery/grapes-twist thread, flat embroidery, tuck embroidery
Jade scent norigae	line shape, bell shape, oval	subject-red knot-red, sliver tassel-red, sliver, blue, red beads	peony, orchid, heavenly peach, lily, 囍(double happiness)	peony, orchid- plaited thread, flat embroidery / leaf- plaited thread, slanted flat stitch, French knots stitch /lily-plaited thread, oblique flat embroidery /heavenly peach- plaited thread, long and short stitch/囍(double happiness)-twist gold thread, tuck embroidery
Cicada norigae	cicada shape	subject-red, purple, blue knot-dark red, blue, pink, yellow tassel-red, dark red, dark green, white beads	cicada, taegeuk, clouds	cicada-gold thread, tuck embroidery /taegeuk-beads, tuck embroidery French knots stitch
Gwebul norigae	triangle, heart shape, knife shape	subject-red, blue, dark green, yellow knot-red, blue, white, yellow, gold tassel-red, blue, yellow, pink	oblique, flower	oblique-twist thread , flat embroidery, tuck embroidery /border-stitching
Sooseogak norigae	sooseogak shape	subject-yellow, green, red knot-bright green, pink orange, green, red tassel-yellow, red, blue, beads, beaten silver, green	leaf, geometric word (oblique), soft wave, lotus flower	leaf,soft wave-long and short stitch, flat embroidery, outline stitch, slanted flat stitch/ geometric word(oblique) -flat embroidery, outline stitch, slanted flat stitch, gold thread, tuck embroidery
Lotus flower norigae	lotus flower shape, octagon	subject-gold, orange, red, green knot-red, orange, blue, dark green tassel-red, orange, blue, dark green	lotus flower, butterfly, leaf, bat, geometric word, clouds	lotus flower, butterfly, leaf, bat-long and short stitch, flat embroidery, outline stitch, slanted flat stitch/ geometric word-flat embroidery, outline stitch, slanted flat stitch, gold thread, tuck embroidery
Bat norigae	bat shape	subject-red, blue, gold Knot-red, blue, yellow, dark green Tassel-red, blue, yellow, dark green, orange	heavenly peach, flower, letter, bat, longevity	heavenly peach-twist thread , flat embroidery, tuck embroidery /flower, letter, bat, longevity -twist thread , flat embroidery
Heavenly peach norigae	heavenly peach shape, bat shape	subject-red knot-yellow, red tassel-red, yellow, dark green, gold thread	heavenly peach, bat, leaf	heavenly peach, bat-gold thread, tuck embroidery
Jarajumchi norigae	rhombic	subject-white knot-red tassel-red	crane, clouds	crane, clouds-flat embroidery, gold thread, tuck embroidery
Thimble norigae	thimble shape	subject-red, blue, yellow, dark green knot-blue, yellow tassel-blue	geometric word (oblique, circle)	geometric word-flat embroidery, tuck embroidery;

2. 색채

Table 1에 분석한 바와 같이 주체, 매듭, 술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향갑노리개의 색채는 주체부분은 두록색, 홍색, 매듭은 홍색, 녹색, 술은 홍색과 두록색, 황색 등이 어우러져 있다. 바늘집노리개의 경우 주체는 홍색, 흰색, 녹색, 분홍색, 술 부분은 홍색, 황색, 흰색, 흑색, 녹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비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매듭과 술은 분홍색, 황색, 홍색이며 화려한 금사로만 수놓은 것도 있었다. 비취모발향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발향은 비취색, 매듭은 홍색, 술은 홍색, 은색, 청색이며 매듭과 술 사이를 홍색구슬로 연결하였다. 매미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청색, 보라색, 매듭은 자색과 연두색, 청색, 분홍색, 술은 홍색, 주황색, 두록색 등이며 매듭과 술 사이를 흰 구슬로 장식한 것도 있었다. 주체의 보라색은 다른 노리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색채이다. 괴불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청색, 두록색, 황색 등으로 다양하며 여기에 오색색동이 덧대어져 있다. 매듭은 홍색, 괴불을 연결하는 끈은 흰색, 분홍색, 홍색, 술은 금색, 홍색, 청색, 황색이다. 수서각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황색, 녹색이며 여기에 오색실로 수를 놓았다. 매듭은 홍색, 두록색, 술은 홍색, 청색, 황색, 홍색, 분홍색 등으로 화려하며 특히 주체의 가장자리 둘레에 작은 구슬을 달았으며 주체와 술 사이는 은박으로 연결하여 감쌌다. 연화문노리개의 주체는 금색, 주황색, 홍색, 녹색이며 매듭과 술은 홍색, 주황색, 청색, 두록색이다. 박쥐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청색, 금색이며 이 때 귀면의 검정색 수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기 드문 색이다. 매듭은 두록색, 황색, 술은 주황색, 홍색, 두록색이며 매듭과 술 사이는 다채로운 색상의 구슬로 연결되어 있다. 천도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매듭은 황색, 술은 홍색, 주황색, 두록색이며 술 윗부분을 금사로 고정시킨 것도 있다. 자라줌치노리개는 주체가 흰색으로 독특하며 매듭과 술은 홍색이다. 골무노리개의 주체는 홍색, 청색, 황색, 두록색, 매듭은 청색, 황색, 술은 청색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노리개에 나타난 색채는 대체로 흑색을 제외한 적색, 청색, 황색, 백색 등의 원색과 함께 두록색, 분홍색, 주황색 등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체는 홍색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황색, 두록색, 백색 등이 사용되었다. 매듭은 홍색, 남색, 황색의 3원색을 기본색으로 하여 분홍색, 연두색, 보라색, 자주색, 옥색 등을 사용하는데 수노리개의 주체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되었다. 술은 단색과 함께 금색, 은색, 홍색, 황색, 청색 등 여러 색을 드리운 것도 많았으며 술 윗부분은 금사, 은박 등 화려한 색으로 고정시키기도 하였다. 이로써 수노리개의 색채는 주체와 매듭, 술의 색이 서로 보색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색상대비는 강한 장식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3. 문양

수노리개에 표현된 문양을 고찰한 결과 향갑노리개에는 구름, 물결, 바위, 달, 해, 동자, 호랑이, 문자, 꽃문양이 보인다. 바늘집노리개에는 모란문과 기하학적인 꽃문양, 기하학문양 등이 수놓아져 있으며, 나비노리개에는 꽃, 포도, 나비, 구름문양이, 비취모발향노리개에는 모란, 난, 천도, 囍, 꽃문양이, 매미노리개에는 매미, 태극 문양, 구름문양 등이 보인다. 괴불노리개에는 사선, 수서각노리개에는 연화, 나뭇잎, 기하문(사선), 잔물결 문양, 연화문노리개에는 연화, 나비, 나뭇잎, 박쥐, 봉황, 구름 문양 등이 수놓아져 있으며, 박쥐노리개에는 천도, 꽃, 문자, 박쥐, 壽 문양, 천도노리개에는 천도, 박쥐 문양, 자라줌치노리개에는 학, 구름 문양, 골무노리개에는 원, 사선 등의 기하문이 수놓아져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수노리개에 표현된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연화, 모란, 천도, 나비, 매미, 박쥐, 호랑이, 봉황, 囍, 壽, 구름, 물결, 바위, 달, 해, 동자상 등을 들 수 있다. 동물문양보다는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식물문양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꽃문양과 천도문양이 많았다.

표현된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 연화문은 꽃과 열매가 나란히 생겨난다하여 연이어 귀한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란은 여성의 아름다움, 부귀, 명예를 상징하는 꽃으로 이 외에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천도문은 장수

와 결혼, 다산을, 불로초문은 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손, 부귀, 화목, 다산을 상징한다. 나비문은 아름다움, 행복, 부부금실을, 매미문은 고결을, 학은 고고함과 장수를 의미한다. 박쥐문은 행복, 다산(多産), 득남(得男), 오복(五福)을 의미하며, 호랑이문은 화재, 수재, 풍재를 막아주고 병난, 질병, 기근의 고통에서 지켜주는 신비로운 힘을, 봉황은 군왕, 부부금실을 상징한다. 문자문은 길상(吉祥)적인 의미를 갖는 한자를 도안화하여 장식한 것으로 장수(長壽), 다복(多福), 부귀(富貴), 영화(榮華) 등을 표현한다. 기하학문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주제문양을 장식해주며 반복적으로 이어 돌림문양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음양철학이나 불교의 윤회사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김지선 2007). 자연문에서 구름, 달과 같은 십장생(十長生)은 항상 변치 않음(恒常性), 견고함 등을 나타낸다. 인물문의 동자상은 남자아이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연화문과 함께 있어 득남과 함께 '연달아 귀한 자식을 얻음'을 의미한다(김종태 등 2003). 수노리개에서는 다른 인물문은 보이지 않고 동자상만 수놓아졌는데 이는 당시 여성들의 남아선호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문양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내적 가치와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 또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라고 볼 때 당시 여성들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수노리개에 심미성의 이유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적인 목적으로 가정의 안녕과 수복(壽福), 부귀(富貴), 다남(多男), 장수, 벽사 등의 생활염원을 상징하는 문양을 수놓아 이를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표현기법

수노리개에 나타난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향갑노리개에는 연화, 구름, 물결, 바위, 달, 해, 동자, 호랑이, 문자, 꽃문양은 평수, 징금수를 수놓았음을 볼 수 있다. 바늘집노리개에는 모란, 꽃, 나비는 평수, 이음수를, 테두리는 사뜨기로 수놓았다. 나비노리개에서 꽃은 평수를, 포도는 평수, 징금수로 수놓았다. 비취모발향노리개에서 모란과 꽃은 평수로, 잎은 가름수, 씨앗수로 하였고, 난은 사선평수, 천도는 자련수로, 囍는 징금수를 수놓았다. 매미노리개에서 매미는 징금수로, 태극은 징금수와 씨앗수로 표현하였다. 괴불노리개에서 사선은 평수, 징금수로, 테두리는 사뜨기로 하였다. 수서각노리개에서 나뭇잎, 잔물결문은 자련수, 평수, 이음수, 가름수로 기하문은 평수, 이음수, 가름수, 징금수로 수연화문노리개에서 연화, 나비, 나뭇잎, 박쥐는 자련수, 평수, 이음수, 가름수로, 기하문은 평수, 이음수, 가름수, 징금수로 표현하였다. 박쥐노리개에서 천도는 평수, 징금수로, 꽃, 박쥐, 문자는 평수로 소 놓았다. 천도향낭노리개에서 천도, 박쥐는 징금수로 하였으며, 자라줌치노리개에서 학, 구름은 사선평수, 징금수로, 골무노리개에서 기하문은 평수, 징금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노리개에 나타난 기법은 대체로 평수, 자련수, 씨앗수, 이음수, 가름수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문양의 나비, 매미, 박쥐, 봉황 등은 대부분 금사를 이용한 징금수로 표현되었으며, 향갑노리개의 호랑이문양은 이색적으로 평수이다. 문자문양에는 囍 등이 대부분 금사를 이용한 징금수로, 기하학 문양은 평수, 이음수, 가름수, 징금수로 표현되었다. 자연문양의 구름, 바위, 달, 해, 물결문양은 평수 혹은 금사를 이용한 징금수로, 인물문에는 동자상이 평수로 표현되었다.

Ⅳ. 결 론

수노리개는 노리개의 고급스러운 면을 한층 살려주는 장신구로써 21세기 글로벌문화시대에 한국적 문화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그 가치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좋은 소재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태, 색채, 문양,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수노리개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표현 특성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1. 수공예적 장식성

수공예적 장식성이란 모든 공정이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장식적인 것을 말한다. 수노리개는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만든 수공예적 장식품으로써 수노리개에 표현된 자수와 매듭은 숙련된 기술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계절이나 행사, 의복의 색상 등에 어울리도록 옷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아서 옷차림을 돋보이게 하였던 수노리개는 궁중은 물론 상류사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애용되었다. 수연화문노리개(Fig. 10)는 다양한 문양과 화려한 색채로 수를 놓아 주체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매우 장식적이다. 또한 매미를 날개부분과 몸통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 매미노리개(Fig. 6)는 몸통부분을 오색색동으로 수놓았으며 매듭과 술을 진주구슬로 장식하고 있음을 볼 때 수노리개의 수공예적 장식성을 볼 수 있겠다.

2. 자연 친화성

자연 친화성이란 자연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을 구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하겠다. 수노리개는 다른 노리개와는 달리 꽃, 나비, 벌 등 자연에서 보이는 것에 영감을 얻어 수를 놓아 장식한 것이 많다. 특히 꽃문양의 표현은 자연에 대한 정감, 자연과의 친화성, 계절 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에 순응하려는 여성들의 심성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바늘집노리개(Fig. 3)는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하게 수놓아진 꽃문양이 보이고 있으며 수연화문노리개(Fig. 10)에서는 연화문, 나비문, 나뭇잎문, 박쥐문, 봉황문, 구름문 등이 서로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자연 풍경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3. 실용성

실용성은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앞에서 고찰한 장식적인 기능 이외에도 수노리개는 실용적 가치도 높다하겠다. 당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 노리개 중 하나였던 골무노리개나 바늘집노리개는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골무나 바늘집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언제든지 휴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향갑 노리개(Fig. 2)와 천도향낭노리개(Fig. 11)는 실용성을 강조한 장신구로써 향을 담아 평소에는 향내음을 은은하게 풍기도록 하였으며 급체를 하였을 경우 갈아 먹기도 하는 등 구급약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향낭노리개는 주머니에 필요한 용품을 넣어두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장신구이기도 하였으며(금기숙 1994) 향나무를 타원으로 만들어 꿰고 공작새 깃털을 붙여 만든 비취모발향노리개(Fig. 5)는 향나무에서 은은한 향이 풍기도록 하였다. 이처럼 수노리개는 장신구로서의 장식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지혜와 솜씨는 보여주는 실용적인 장신구라 하겠다.

4. 기복성

기복이란 복을 빈다는 의미로 당시 여성들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수노리개를 통해 심미성의 이유뿐만 아니라 액을 피함과 동시에 길복을 축원하고 가정의 안녕과 수복(壽福), 부귀(富貴), 다남(多男), 장수, 벽사 등의 생활염원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문양을 수놓았다. 일반적으로 부(富), 귀(貴), 수(壽)를 넣은 노리개는 나이가 든 부인이, 다(多)와 남(男)을 넣은 노리개는 젊은 부인들이 패용한 듯하다. 연화문이나 박쥐문, 동자문은 다산과 남아선호에 대한 당시의 시대상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부부금실, 화합 등을 의미하는 나비문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길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문양뿐만 아니라 나비의 형태를 가진 노리개와 나비향낭노리개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림에서 매미노리개(Fig. 6)는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뜻으로 여겼으며, 또한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선인이 된다는 것과 이슬을 먹고 곡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맑고 고결한 정신, 청빈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년이상의 부인들이 애용하였다(차명순 2002). 자라줌치노리개(Fig. 13)는 자라모양의 작은 주머니 형태를 다홍색 술에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백공단에 봉황, 구름, 불로초 등을 오색 견사로 수놓았으며 십장생은 장수를, 주머니는 복을 상징

하고 자라는 거북이와 비슷한 형상으로 장수의 의미를 가진다고 여겼다. 비취모발향노리개(Fig. 5)는 발향의 상단, 중단, 하단의 홍색공단에 모란, 천도, 쌍희자(囍) 등 길상문을 수놓아 장식하였으며, 괴불노리개(Fig. 7)는 귀불이라고도 불리며 벽사(辟邪)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김완길 1994) 본래 주머니 끈의 장식이었으나 서민들에게는 노리개의 대용품으로 쓰였다. 또한 향갑노리개나 향낭노리개의 은은한 향내는 실용성과 함께 해악한 기운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기복성을 보여준다. 또한 오방색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수노리개의 색채는 특히 적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액을 피하고자 하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5. 균형과 조화성

균형성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으며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성질을 뜻하며, 조화성이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서로 어울러져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수노리개는 주체 부분의 나비나 박쥐 등의 문양, 주체를 보조하는 매듭과 술이 앞뒤, 좌우 완벽한 대칭을 이루어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4). 또한 하부의 매듭을 상부의 매듭보다 크게 만들었는데 이는 매듭의 흐름이 되는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한편 수노리개는 형태상으로 크게 매듭과 주체, 장식부분으로 구분되지만 어느 것이 주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주체, 매듭, 장식부분의 세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매듭은 주체부분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주체부분과 술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림에서와 같이 천도향낭노리개(Fig. 12)는 균형과 조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6. 선율성

선율성이란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성질을 의미한다. 수노리개의 술은 대부분 주체부분의 길이가 크기와는 상관없이 길게 늘어뜨린 것이 특징이다. 길게 늘어뜨린 술의 움직임은 바람과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선율성을 가진다. 비취모발향노리개(Fig. 5)는 긴 발향부분과 술 장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취색의 발향 사이사이에 수놓아진 장식부분은 화려한 색채조화를 보여주며 술과 함께 흔들리는 발향의 움직임은 아름다운 선율미를 보여준다. 수서각노리개(Fig. 9)와 자라줌치노리개(Fig. 13)는 주체부분보다 술의 길이가 길어 더욱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괴불노리개(Fig. 7)는 일정한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괴불과 술 등이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흔들리는 선율성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수노리개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수공예적 장식성, 자연친화성, 실용성, 기복성, 균형과 조화성, 선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가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시대적 감각에 맞는 장신구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1997) 매듭장. 서울: 신부사. 27.

국립민속박물관(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 서울: 산하인쇄. 362.

국립중앙박물관(2004) 한국전통매듭. 서울: 중앙문화인쇄. 31-33.

금기숙(1994) 조선복식미술. 서울:열화당. 138-142.

금기숙(1999)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 69-82.

김민정・이상은(2008) 조선후기 자수문양에 나타난 해학성 연구. 한복문화 11(2), 199-200.

김세환(1994) 한국 노리개의 조형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완길(1994) 한국화장문화사. 서울: 열화당. 140.

김은영(1998) 전통 매듭. 서울: 대원사. 32.

김종태・김지아・김지윤(2003) 자수 문양의 종류와 상징성. 국립민속박물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편, 391-399.

김지선(2007) 한국전통 꽃문양의 상징성과 형태 및 색채 특성에 따른 조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52.

박성실・조효숙・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들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출판부, 172.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1992) 북역 고려사 제7책.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594, 597, 598.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옮김(2005) 고려도경. 서울: 도서출판 서해문집. 159.

석주선(1985)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360-373.

양숙향(2009) 매듭과 장식. 제12회 서울국제매듭전, 72.

유희경・김문자(2001)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304-308.
육당 전집 편집위원회 (1974) 육당 최남선 전집 9. 서울: 현암사. 451.
은영자・정명숙(1984) 조선시대 노리개에 반영된 여성의 가치관 고찰. 과학논집 10, 5.
이경자・홍나영・장숙환(2003) 우리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146-147.
이경자(2005) 노리개.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5-46, 113.
이세진(1983) 조선왕조후기 노리개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희(2005) 우리나라 노리개에 關한 硏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숙・김진구(1987) 朝鮮時代의 노리개에 관한 硏究. 韓國生活科學硏究 5, 113.
정명숙(1984) 전통자수 표현기법 연구. 명지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명순(2002) 전통매듭과 현대 매듭의 만남. 서울: 느림. 28.
한영화(1994) 빛깔있는 책들 전통자수. 서울: 대원사. 67.
허동화(199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서울: 현암사. 80.
허동화・심연옥(2006) 끈목・매듭. 서울:한국자수 박물관 출판부. 72-91, 144, 156, 180-182.
홍복의・박경자(1992) 유물수노리개와 현대 수노리개의 비교연구. 복식 18, 374-375.